

버나디나 가고 이명기 수술대... KIA 외야 '변화의 바람'

버나디나 올 시즌 부진...새 外人 물색
이명기 발목 수술 후 3~4개월 재활
오늘부터 훈련 재개...새 시즌 밀그림

KIA 타이거즈 외야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일찍 시즌을 마감한 KIA는 일본 오키나와, 합평 철린저스 필드에서 새 시즌을 위한 밀그림을 그리고 있다. 8일부터는 일본 오사카로 회복 훈련을 다녀온 김선빈, 안지홍, 임기영 등을 포함한 1군 선수단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아쉬웠던 2018시즌을 돌아보고 2019시즌의 희망을 그려야 하는 시간, 외야에 눈길이 쏠린다. 작별과 부상으로 새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KIA 외야는 최형우-버나디나-이명기라는 조합을 중심으로 라인업에 변화를 주면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KIA는 지난 2년 함께했던 버나디나를 대신할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

명기는 발목 수술로 초반 컨디션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타이거즈 외국인 사상 첫 '20(홀런)-20(도루)'의 주인공인 버나디나는 우승 순간에도 빛났지만 올 시즌에는 기대에는 살짝 부족한 모습이었다. 지난 시즌 성적은 타율 0.320, 178안타, 27홈런, 118득점, 111타점, 32도루. 올 시즌에는 타율 0.310, 159안타, 20홈런, 106득점, 70타점, 32도루를 기록했다. 올 시즌 4개의 실책도 기록한 버나디나는 36살이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하락세라는 평가다. 시즌 중반 '잔류'로 가닥을 잡고 버나디나를 지켜봤던 KIA의 입장은 결국 '작별'로 결론이 났다. 이명기는 수술대에 오르면서 '재활군'이 됐다. 고질적인 발목 통증으로 고생했던 이명기는 지난달 23일 좌측 발목 인대 재건 및 연골 정리 수술을 받았다. 재활에 3~4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시즌 종료와 함께 수술을 받으려는 오는 2월에 시작될 스프링캠프에는 참가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최상의 컨디션은 장담할 수 없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오른쪽 발목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던 김선빈도 스프링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재활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시즌 준비가 이뤄지면서 시즌 초반 '타격왕'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2016시즌이 끝난 뒤 허벅지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던 김주찬도 2017시즌 폼을 찾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이명기는 수술 후 회복이라는 숙제와 함께 올 시즌 보여줬던 기복을 줄이는 데도 고심해야 한다. 변화의 바람 속에 기회를 노리는 이들의 걸음은 빨라지게 됐다. 특히 올 시즌 내-외야에 투입되면서 입단 후 가장 많은 101경기에 출전한 최원준은 아쉬움을 남겼던 '타격'이라는 장점을 살리면 가장 유리한 고지에서 외야 싸움에 도전할 수 있다. 올 시즌 승거뒀던 파울을 보여줬던 박준태도 변화의 외야에서 주목받는 자원이다. 시즌 중반 부상으로 상승세를 잊지 못했던 유재신도 새로운 시즌을 기다리는 외야 1인이다.



버나디나



이명기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제 2의 장현수 나올라” 축구선수 봉사활동 지원

축구협, 병역특례 선수 프로그램 운영

병역특례 봉사활동 내용을 부풀렸다가 대표팀에서 영구 퇴출당한 축구선수 장현수(FC도쿄)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대한축구협회가 선수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내년부터 병역특례 축구 선수들을 위한 단체·개인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장현수의 사례를 참고해 병역특례 선수들의 부실한 봉사활동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적절한 봉사 기회를 찾지 못하는 선수들도 돕는다는 취지다. 축구협회는 우선 취약계층과 유소년을 위한 축구 클리닉 행사 등을 직접 마련해 병역특례 선수들이 단체로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올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은 여름과 겨울 휴식기에 정기적으로 단체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 시즌 중이라도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수하려는 선수들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제휴해 개인 봉사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유소년 팀 등과 봉사 프로그램을 논의 중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병역특례 대상 선수들에게 현행 체육 봉사활동 규정을 정확히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FIFA 여자 월드컵 내달 9일 조추첨

한국 여자축구의 2019 국제축구연맹(FIFA) 프랑스 여자 월드컵 본선 상대가 다음 달 9일 결정된다. FIFA는 12월 9일 오전 2시 프랑스 파리의 센강 세경섬에 있는 라센뮈지칼에서 각국 대표팀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여자 월드컵 조 추첨식을 개최한다. 조 추첨식에는 한국 여자대표팀의 사령탑인 윤덕여 감독이 참석한다. 내년 6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9개 도시에서 열리는 여자월드컵의 출전국은 24개국이다. 프랑스가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출전권을 얻은 가운데 대륙별 출전 쿼터는 아시아 5장, 유럽 8장, 아프리카 3장, 북중미 3.5장, 남미 2.5장, 오세아니아 1장이다. 24개 출전국 가운데 18개국이 본선 진출을 확정했고, 나머지 6장의 본선행 티켓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진행 중이다. 아시아 대륙이 가장 먼저 출전국을 확정했다. 한국과 일본, 호주, 중국, 태국이 본선에 선착했다. 유럽은 예선 7개 조 1위에 오른 잉글랜드와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스페인, 스웨덴이 출전권을 얻었다.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9일과 13일 플레이오프에서 마지막 1장을 놓고 다툰다. 북중미 여자 월드컵 3위 안에 든 캐나다, 자메이카, 미국과 남미 여자 코파아메리카 2위 안에 든 칠레, 브라질도 직행 티켓을 확보했다. 북중미 4위 파나마와 남미 3위 아르헨티나가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치러 마지막 1장의 주인을 가린다. /연합뉴스



“더는 못 뛰겠소”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4차전 PSV 에인트호번과의 경기 도중 득점에 실패한 후 그라운드에서 주저앉아 있다. 손흥민은 이날 선발 출전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후반 30분 교체됐다. 토트넘은 2-1로 역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방전된 ‘손’

최근 3주간 3.28일 마다 출전...에인트호번전 몸놀림 둔화에 최하 평점

손흥민(토트넘)이 최근 혹사에 가까운 빡빡한 경기 일정에서 시달리고 있다. 비시즌 기간 러시아 월드컵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을 차치하더라도, 최근 출전 일정은 축구 팬들의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다. 그는 지난 1일 카라바오컵 웨스트햄과 원정경기에서 풀타임 출전했고, 이틀을 휴식한 뒤 4일 프리미어리그 올버햄프턴전에 52분만 뛰었다. 해당 경기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지만, 팀 동료인 무사 텀벨레가 경기 초반 다치면서 어쩔 수 없이 교체 출전했다. 그리고 단 이틀을 쉬 뒤 다시 한번 그라운드를 밟았다. 그는 7일 영국 런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에인트호번(네덜란드)과 홈경기에 선발 출

전해 75분만 뛰었다. 손흥민이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일간 무려 7경기를 뛰었다. 수치상으로 3주 이상의 기간을 3.28일마다 실제 경기를 치른 셈이다. 리그 경기를 뛰지 않은 지난달 중순엔 한국으로 건너와 우루과이, 파나마와 평가전에 출전하기도 했다. 그는 파나마전을 마친 뒤 “오늘은 정말 힘들더라. 컨디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혹사 여파는 최근 경기에서 조금씩 표출되고 있다. 손흥민은 에인트호번전 전반에 예전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주특기인 ‘치고 달리기’는 한 차

레도 나오지 않았다. 또 몸놀림이 눈에 띄게 둔해졌다. 후반전에 조금 살아났지만, 예전의 손흥민이 아니었다. 그는 후반 30분에 교체됐고, 유럽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 닷컴으로부터 평점 5.94점을 받았다. 이날 토트넘 선수 중 5점대 평점을 받은 이는 손흥민이 유일하다. 다행히 손흥민에게 곧 휴식 시간이 찾아온다. 토트넘은 11일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털 팰리스와 경기를 치른 뒤 잠시 휴식기에 들어간다. 손흥민도 호주 원정으로 치르는 한국 대표팀의 11월 A매치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대한축구협회가 손흥민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조건으로 11월 A매치에는 부르지 않기로 토트넘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다음 달 25일 첼시와 경기까지 약 보름 동안 재충전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 FC 두아르테 K리그2 35R 베스트 11

광주 FC의 두아르테가 K리그2 35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35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하는 등 매서운 움직임으로 팀의 2-2 무승부를 이끈 두아르테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아르테는 전반 17분 김정환이 머리로 넘겨준 공을 왼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선제골의 주인공이 됐다. 두아르테는 1-2로 뒤진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이승모의 ‘극장골’에도 관여했다. 한편 광주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안산 그리너스와 정규시즌 최종전을 갖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두아르테